# “인도 마하보디 사원 운영권을 불교도에게”

**독립적 운영 권리 인정 성토**
**시스템 변화 요구 단식 시위**
**“19세기 법률 다탕성 없어”**
**인도 정부, 무반응으로 일관**

박영빈 객원기자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불교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시위대.
사진출처=파임 아시아 뉴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온전히 불교도들에게 넘길 것을 촉구하는 단식시위가 부다가야에서 일어났다. 시위를 이끄는 라다크 출신의 상가세나 스님은 “불교도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를 불교도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인도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시위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인도와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인도의 ‘파임 아시아 뉴스’는 더욱 늘어나는 시위대의 모습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인도 비하르주에 부다가야에 소재한 마하보디 사원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장소로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 대왕이 정비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사원 내부에는 아소카 대왕이 세운 금강좌와 돌난간 등이 남아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수백 명의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함께 마하보디 사원의 현 관리 시스템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단식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대는 현 시스템이 마하보디 사원의 진정한 주인인 전 세계 불교 공동체를 사실상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시스템은 1949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보드가야 사원 관리 위원회(BTMC)가 사원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중 과반수인 5명은 힌두교도에게 자리가 주어지며, 특히 위원장은 힌두교도로 비하르주 지방 행정관이 맡게 된다.

마하보디 국제 명상센터의 지도자이자 시위대를 이끄는 상가세나 스님은 “인도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남아있는 불교사원과 유적을 보존하는 관리자로 지역 힌두교도가 임명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인도에서 불교도가 극소수였던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행정 시스템이며 오늘날에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49년 마하보디 사원 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은 제정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 중인 중요한 문제”라며 “이미 한차례 힌두교도와 불교도가 동등하게 위원직을 맡기로 한 개정안이 나온 바 있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위에 대하여 인도 내 단체들을 포함해 500여 개의 단체들이 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은 이 단식에 합류하기 위해 보드가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라다크에서 온 스님들과 재가자 1000여 명이 시위에 합류했다.

시위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성명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가세나 스님과 시위대는 “인도에서 힌두교를 위한 람 만디르와 무슬림을 위한 자마 마스지드와 같은 인도의 다른 역사적인 종교적 예배장소가 일반적으로 해당 종교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마하보디 사원에 대한 불교의 독점적 통제에 대한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며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 베트남 스님, 인도 향한 도보 만행 순례

**두타 수행과 전법 실천 순례**
**미얀마 내전으로 경로 변경**


도보 만행 중인 틱 민 투에 스님과 순례단.
사진출처=BBC 베트남

지난 3월 6일 홍콩의 가톨릭아시아뉴스연합은 베트남 스님의 도보 만행 소식을 전했다. 베트남의 틱 민 투에(Thích Minh Tuệ) 스님은 13가지 두타 수행과 전법을 실천하면서 인도까지 도보 순례를 하고 있다.

2023년 11월 18일 베트남에서 시작한 도보 만행는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다. 미얀마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내전으로 인한 태국과 미얀마 국경 폐쇄 및 태국 체류 문제로 2700km를 우회하여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경로를 선택했다.

함께 순례 중인 푹 지악 스님은 “태국에서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었기에 미얀마로 가려고 했으나, 내전으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졌다”면서 “라오스로 돌아가 태국 비자를 새로 받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태국 재입국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결국 말레이시아로 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나 스리랑카로 가는 배편을 찾을 계획이며, 여의찮으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순례단은 하루 20km씩 맨발로 걷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시주를 받기 위해 발우를 들고 다닌다. 틱 민 투에 스님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맨발로 순례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맨발의 스님’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해졌다.

틱 민 투에 스님은 엄격한 수행 생활을 유지하며 불교의 13가지 두타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의 소박한 삶과 두타행으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그를 공식적인 스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환속한 일반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국영 매체들은 틱 민 투에 스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국영 하노이 방송(Hanoi TV)은 지난 2월 22일 도보 순례 중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순례가 ‘집단 내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분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캄보디아, 종교 화합 위한 불교-이슬람 정상회담

**무슬림 세계 연맹 주최로 회담**
**2월 27일, 30개국 180명 모여**


프놈펜에서 열린 불교-이슬람 정상회담.
사진출처=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국교를 불교로 삼고 있는 캄보디아가 종교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불교-이슬람 정상회담에 나서 화제다. 3월 6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글로벌 도어’는 지난 2월 2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무슬림 세계연맹이 주최한 이번 회담은 캄보디아 최초의 무슬림 연맹 주최행사로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80여 명의 대표가 모였다.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은 정상회담의 개최사에서 “캄보디아 내의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연대와 종교적 조화”를 강조했다. 또한 “이 행사는 국가가 종교 간 대화와 공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음을 상징한다”고 첨언했다.

캄보디아 국민 약1750만명 중 약 93%가 불교도이다. 이슬람은 두 번째로 큰 종교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캄보디아 이슬람교단을 감독하는 무슬림 세계연맹 최고위원회 위원인 오스만 하산 수석 장관은 이 정상회담을 캄보디아의 종교적 발전의 이정표로 표현했다. 하산 장관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캄보디아는 인종적, 종교적 차별 없이 국민에게 완전한 민족적, 종교적 조화를 제공하는 모범국가로 전 세계에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슬림 세계연맹은 국제 비정부 기구로 사우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온건한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이슬람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종교적, 민족적 화합을 증진함과 동시에 캄보디아의 관광 부문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캄보디아 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관광객이 23% 증가한 가운데 단일 국가로서 중국이 세 번째로 큰 외국 관광객이다.

한편 중동에서 온 방문객은 2023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12만 30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중동과 기타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이슬람-불교 정상회담은 종교적 관용과 포용성의 이미지를 투사하려는 캄보디아의 광범위한 노력과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종교 간 외교를 활용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부처님 가르침 빛으로 비추다

**보디패스 영화제 3월 11일 성료**
**영화 상영·토론 불교 가치 공유**



보디패스 영화제 2025 포스터.
사진출처=인도 언론정보국

지난 3월 11일 인도의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은 국제불교연합(IBC)과 달라이 라마의 보편적 책임 재단이 공동 주최한 보디패스 영화제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화제는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통찰을 선사했다. 불교 철학이 현대 사회에 위안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영화라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번 영화제의 핵심 목표였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자비, 마음챙김, 무상 등의 가치를 조명하는 작품들로 엄선한 총 10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이외에도 학자, 영화 제작자, 수행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마련됐다. 대화의 장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현대 영화의 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평화와 마음챙김을 증진하고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패널 토론에서 인도 배우 가간 말릭은 “명상은 마음챙김의 실천이다. 명상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